

# 대혜·고봉의 터에서 인생을 돌아보다

11면에서 계속

## # 대혜종고-아육왕사, 경산사

대혜종고(1089-1163)는 선(禪)으로도 뛰어났으나 현실도 증시하는 선사였다. 선사의 생존 시기는 북송이 금에 공격받아 남송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이었기에 대혜 선사는 선(禪)으로써 사대부를 지도, 현실을 이겨내려 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간화선의 교과서'라 불리는 <서장(書狀)>은 선사가 사대부 및 스님들과 주고받은 편지글이다.

대혜 선사는 이런 활동때문에 오해를 사 15년간 귀양살이를 한다. 유배에서 풀려나 67세 되던 해 한 사람의 주지를 맡았는데 이곳이 바로 아육왕사다. '아육'은 인도 '아소카'의 음차다. 여기에는 대혜 선사의 숨결뿐만 아니라 부처님 두팔 사리 보탑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281년 해탈 스님이 창건했고 '아육왕사'라는 이름은 양주제가 가사했다.

대혜 선사 주석 당시, 법문을 듣기 위해 1만이 넘는 대중이 찾아왔을 정도라니 구도자들의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다. 알고보니 고려 유학승 의종과 의천, 나옹 선사도 참배했다.

대혜 선사는 물려든 대중에게 무엇을 강조했을까. 아마도 '화두(話頭)'이지 않을까. 그저 앉아 마음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잡아 붙들며 마음대로 소요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대혜 선사의 생각이었다. 위태로운 시대, 유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실정치 상황 속에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생동감 있는 간화선을 주창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대혜 선사와 연관된 또 다른 사람은 위항시 경산사다. 경산사는 대혜 선사가 46세 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주지를 맡았던 곳이다. 또한 이곳은 고지대 차 재배지역에 위치,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연원이 된 곳이기도 하다. 대혜 선사가 이곳에 있을 때는 험준한 산악 사찰임에도 1700여명의 사부대중이 설법을 듣고자 몰려왔다고 한다. 선사는 주지에서 물러난 75세 되던 해 명월당에서 '사는 것도 이렇하고 죽는 것도 이렇함에 게송을 남기고 남기지 않는 것, 이 무슨 유행인가'라는 말을 남기고 입적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열매일 없이 활달한 선풍을 보여준 대혜 선사를 생각하며 순례단은 경산사에서 잠시 선정에 드는 시간을 가졌다. 환승을 하며 떠려는 눈물을 흘리기



이번 순례단의 증명법사 고무(사진 왼쪽)·무비 스님. 순례단은 대혜·고봉 선사의 자취를 좇으며 우리 선지식을 따르는 기쁨을 맛봤다.

도 했다. 선사가 남기고 간 이 길 위에서 있다는 감동이 전율처럼 밀려와서였을 것이다.

## # 고봉원묘-천목산

고봉(1238-1295) 선사는 그야말로 수행자의 면모를 가졌다. 15세 되던 해 출가한 고봉 선사는 원래 천태학 등의 교화에 먼저 발을 디뎠으나 20세가 되던 해부터 선 수행의 길을 걷는다. 젊은 수행자가 '3년 안에 깨치지 못하면 죽겠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정진의 길에 들어섰더니 놀라움이 앞선다. 고봉 선사는 단교·설암 선사에게서 화두를 받고 깊이 참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확실히 깨쳤다고 확실할 때까지 참구, 또 참구하던 선사는 결국 천목산으로 향해 정진을 계속한다.

천목산은 고봉 선사가 대중을 피해 들어간 곳이다. '고봉 높은 점 하늘과 비교되지 않고 사관(死關) 험한 점 18 지옥과 비교되지 못하네'라는 말이 돌 정도면 고봉 선사의 고고함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된다. 고봉 선사는 토굴의 이름부터 '죽을힘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결연

한 의지로 지었던 것이다. 깎아지른 바위 위에서, 그야말로 오갈 수도 없는 곳에서 선사는 15년간 정진한다. 사관 바로 옆에 지어진 사자구(獅子口)에는 고봉 선사가 '철저히 죽어야만 산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한 말이 쓰여있다.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길이 그가 들어앉은 바위절벽 토굴보다 더 험난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찾으면 불행 듯, 깨닫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진하던 수행자를 떠올리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

"찾아봐도 사관에 들어오지 않았고, 갔어도 사관을 벗어날 수 없었다. 쇠뿔이 바지를 뚫고 들어가 수미산을 쳐서 무너뜨리도다."

확절대오한 면모가 느껴지는 고봉 선사의 게송이다. 이런 고봉의 면모를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선요(禪要)>다. 고봉 선사가 깨친 후 20여 년간 설법했던 것을 시자 지정 스님이 기록한 것이다.

중국/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신촌 대표·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 더덕



### 자연산이고 오래된 것 향 강하고 약효 높아 위트트 해지고, 남성 정력과 기관지에 좋아

더덕은 향이 강합니다. 특히 더위 기 기승을 부릴 때 가장 짙은 냄새를 풍깁니다. 향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여름 숲속을 걸다 특유의 향을 맡고 더덕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덕을 한방에서는 사삼(沙參)이라고 부릅니다. 인삼처럼 약효가 뛰어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덕을 자르면 하얀 진이 나오는데 이 진 속에는 인삼의 약성분인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쓴맛을 내며 각종 약리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산과 오래된 것일수록 향이 강하고 약효도 높다고 합니다. 재배 더덕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고 담백한 맛을 내는데, 이 때문에 요리로 먹기에는 재배 더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초학적 시각으로 볼 때 더덕은 성미가 단맛과 쓴맛을 함께 갖고 있

으며 약간 찬다. 인삼과 달리 찬 성미가 있어 열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몸 안에 부종이 있는 것을 치료해주는 효능이 있고, 목성 물질을 밖으로 배출해주기도 합니다. 모유분비 촉진역할도 합니다.

고서(古書)에는 더덕이 위를 튼튼하게 하고 남자의 정력을 강화시키며 기관지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전합니다. 더덕을 오래 먹으면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폐결핵으로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많을 때 더덕을 먹으면 배농작용을 하며, 혈압을 낮춰주고 부인과 질환으로 젖의 분비가 원활치 못해 발생하는 유선염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횡단은 오히려 높이는 작용을 해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더덕과 참살을 이용해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더덕떡 재료: 더덕, 꿀, 참살

### 만드는 법

- ①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방망이로 살짝 두드려 부드럽게 한 후 꿀에 재워둔다.
- ② 참살은 하루 전에 담갔다 소금으로 밀간을 해 가루로 뿜어둔다.
- ③ 꿀에 재워뒀던 더덕에 참살가루를 손으로 쥐듯 잡아 가루가 두둑하게 묻도록 한다.
- ④ 더덕을 시루에 찌서 담아낸다.

## 60회 맞은 '명무명인전'

3월 18·19일 오후 7시30분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약당서

무관심 속에서 여여히 한국전통무대의 예술혼을 이끌어 제자리를 지켜온 '한국 명무명인전'이 60회를 맞았다. 기념 무대는 3월 18·19일 오후 7시 30분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마련된다.

이 기획은 동국예술기획 대표 박동국씨가 1990년 이후 19년째 힘겹게 지켜오고 있는 순수 전통문화 행사다. 제60회를 맞

아 특별히 전통음악 및 춤 분야의 원로에서 중진에 이르는 예인들이 무대에 선다. 특히 70평생 이상을 한국전통무용만을 고집하며 명인명무로 평가받는 권명화(소고춤), 김진홍(무당춤), 최선(호남살풀이춤) 등이 출연한다. 여기에 송준영(훈령무), 이춘자(태평무), 엄옥자(원향살풀이춤), 이길주(산조무), 이경화(설장고), 양길순(승무)

등 중견 명인들도 대거 참여한다. 이밖에도 가야금 병창, 피리 독주, 한량무, 춘앵전, 원향살풀이춤 등도 선보인다.

한편 6월 4일 오후 7시 30분에는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로 무대를 옮긴다. 역시 김진홍, 엄옥자, 이경화, 이길주 등이 출연해 동래한량무, 원향 살풀이춤, 승무, 판소리, 소고춤 등을 선보인다.

명인명무전을 이끌어 온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는 "그동안 명인명무전은 각 분야의 원로급 예능 보유자를 중심으로 준보유자 등 전통 예술인들의 발표 무대를 이끌어 왔다"며 "이번 무대는 한국의

소리와 장단, 춤이 원로와 중진 및 유망주들이 3대를 이뤄 우리 전통의 공산은 맛과 향기를 전국 무대 곳곳에 뿌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회를 털어 냈다. (02)2278-5452 김주희 기자



신이 전한 중화예술의 르네상스

# 신운스펙타클러

DIVINE PERFORMING ARTS  
CHINESE SPECTACULAR

## 神韻晚會

브로드웨이 놀라게 한 세계일류 공연

### 신운(神韻)뉴욕예술단 전세계 순회공연

www.divine.or.kr  
www.bestchineseshows.com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3. 22.(토) 오후 2시, 저녁 7시  
23.(일) 오후 2시, 저녁 7시  
24.(월) 저녁 7시

A석 30,000원 S석 50,000원 R석 60,000원 VIP석 80,000원 VVIP석 100,000원

문의: 1588-8091

주최: 大紀天時報

주관: 韓國法輪大法學會

※ 좋은인원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감히 추천합니다.  
전) 동국대학교한외과대학외과교수  
한의학 박사 동일한의원원장 노동일 협장  
한의학 박사 보건학 박사